

미국장로교 제 225회 총회 장소와 개최 방식 변경에 대한 보고서

총회 사무국 위원회

2021년 1월

총회 사무국 위원회 (“COGA”)는 2020년 12월 3일에 14-2로 투표하여, 미국장로교 제225회 총회 (“225회 총회”) 개최지를 오하이오 주 컬럼버스에서 켄터키 주 루이빌로 바꾸었고 개최 방식도 하이브리드 모델로 변경하였다.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회의 날짜와 위원회 회의 구성과 본회 구성에도 변화를 주기로 했다. 이 보고서는 COGA가 수행하는 의사 결정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개최 방식에 대한 여러 선택 사항과 재정적으로 고려할 점을 기술하고 있다.

제 224회 총회가 끝난 후, COGA는 2020년 6월 30일에 만나 회의를 열고 절차를 보고하고 처리했다. 이 회의에서는 제 224회 총회 기간 동안과 총회 이전에 결정했던 사항이 검토되었다. 주로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제 224회 총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했던 결정과 교단의 일상 기능을 지속하는데 있어 "핵심적이고 필수적"이지 않은 대부분의 사업을 제 225회 총회로 넘기는 것을 권고하는 사항이 그 대상이었다.

총회 사무국 위원회는 다양한 그룹에 대해 자행되지만, 특히 흑인 여성과 소녀에게 노골적으로 저질러지는 미세한 차별과 거대한 차별을 다루는 데 많은 시간을 쏟았다.

이러한 일에 더하여 총회 정서기 J. 허버트 넬슨 목사는 새로운 방향으로 총회 회의를 이끌 비전을 제시했다. 총회의 초점을 회의의 절차나 토론이나 가부표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 신실하고 창조적인 사역을 촉진하는 것에 두자는 것이다. 총회 사무국 위원회는 6월 30일 회의와 통찰을 통해 정서기와 협력하여 총회 회의와 절차와 과정과 문서에 대해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더하여 회의를 규정하는 헌법 조항들과 총회 사무국 위원회가 교단의 활동과 사역 속 주요 회의를 위해 제공하는 형식에 대한 전면적 검토도 착수하기로 하였다.

이 중대한 회의에서, COGA 의장인 스테파니 앤소니와 부의장인 엘리야나 맥심은 검토되는 주요 영역인 **총회 개최 방식** 및 **총회 절차**를 맡아 일할 그룹을 만들었다.

총회 개최 방식 담당 그룹:

의장, 윌슨 케네디
줄리아 헨더슨
앤디 제임스
린 하그로브
샬리 왓슨
블라이스 덴햄 키퍼
레온 로벨마틴

총회 절차 담당 그룹

의장, 린 매스터스
오지현
로빈 퓨
샘 보너
루시 덕슨브램블

두 그룹은 COGA 월례 회의 사이에 여러 번 만났고, 피드백과 중간공의회 지도자와의 사후평가 모임 및 224회 총회 참가자가 답한 설문지 등을 통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었다. 이 중요한 대화들과 더불어, J. 허버트 넬슨 목사는 총회 회의에 대한 흥미로운 비전을 발표했다. 이 비전이 총회 사무국 위원회가 승인한 기술적 변화와 함께 구현된다면, 누군가를 배제하고 소외시키던 이전의 구조에서 일을 수행하기에 혁신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새로운 토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총회사무국 위원회는 해당 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총회 개최 선택안들을 고안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예측하는 힘든 업무를 해낸 총회사무국 직원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 선택안들은 아래의 그래프에 나열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는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보고서가 기재되어 있다. 계약 상의 의무에 근거한 직원들의 권고에 따라, 총회사무국 위원회는 비공개 모임에서 여러 선택안들을 고려하기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이제 총회 사무국 위원회가 최종 결정에 이르게 된 과정을 모든 장로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선택안들을 공개하였다.

Costs	For Discussion by COGA			Optional	Not Recommended by Workgroups			Louisville Investment Costs
	Committees & Plenary 1,2 in Person; Columbus (ballroom)	Committees Gather Sequentially; Louisville	Committees & Plenary 1,2 in Person; Louisville (ballroom)	All Online	Traditional	Committees & Plenary 1,2 in Person; Columbus (conv center)	Committees online; Plenaries in Person; Columbus	
Lodging	\$445,094	\$333,659	\$413,488	\$31,942	\$859,140	\$445,094	\$368,596	
Travel	\$401,254	\$363,014	\$392,744	\$7,992	\$401,254	\$401,254	\$390,812	
Meals & Per Diem	\$184,988	\$99,851	\$181,793	\$19,713	\$315,547	\$184,988	\$188,139	
Production	\$58,075	\$38,500	\$58,075	\$38,500	\$230,270	\$150,945	\$165,745	\$336,199
Committee Expense	\$58,740	\$4,200	\$58,740	\$4,200	\$58,740	\$58,740		\$16,200
Other Facility Expense	\$128,200	\$14,570	\$169,200	\$14,570	\$223,340	\$223,340	\$223,340	
GA Technology/IT	\$28,500	\$32,157	\$28,500	\$32,157	\$57,000	\$28,500	\$42,750	\$30,000
Online meeting expenses	\$67,059		\$67,059			\$67,059	\$44,327	
Attendee Support	\$38,500	\$19,500	\$38,500	\$13,000	\$38,500	\$38,500	\$38,500	
Worship & Bible Study	\$15,684	\$37,000	\$15,684	\$28,500	\$15,684	\$15,684	\$15,684	
COLA	\$88,375	\$5,000	\$5,000	\$5,000	\$132,556	\$88,375	\$88,375	
Attrition*	\$246,395					\$246,395	\$361,785	
Cancellation**		\$520,760	\$520,760	\$520,760				
Total	\$1,760,863	\$1,468,211	\$1,949,543	\$716,334	\$2,332,031	\$1,948,873	\$1,928,053	\$382,399

*Attrition estimates are based on shorter stays for these scenarios, but do not take into account possible reduction in attendees in some categories.

**Cancellation fees reflect our maximum exposure based on contracted schedules for cancellation before the end of 2020.

12.2.20

224회 총회를 통해 분별한 가치와 기회, 그리고 교회가 새롭게 사역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정서기의 비전에 일치할 앞으로의 향방을 결정할 다양한 선택안들이었다. 모든 선택안은 먼저 총회 개최 방식 담당 그룹에서 평가했고, 다음에 총회 절차 담당 그룹의 자문을 구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총회사무국 위원회의 모든 회원들이 평가했다. 여기에는 미국장로교 선교국 이사회에서 나온 직권 당연직 회원인 다이앤 모펫과 새넌 밴스오캠포도 포함되어 있었다.

창의성, 혁신 및 변화하는 재정적 현실과 같은 많은 요소가 고려되었다. 총회 개최 방식 담당 그룹이 작업을 시작했을 때, 여러 사람이 모여 만든 새로운 비전에 각각의

선택안들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데 18 시간 이상을 쏟았다. 총회사무국 위원회 지도부는 총회사무국 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선택안들을 결정해 가져오도록 총회 개최 방식 담당 그룹에게 요청했다. 이 그룹은 위에 언급된 각각의 선택안들을 살펴본 후, 총회사무국 직원들에게 오하이오 주 콜럼버스 안과 켄터키 주 루이빌 안을 비교하도록 요청했다. 처음부터, 총회 개최 방식 담당 그룹은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되는 "대규모"의 일주일 동안의 총회는 현 상황에서의 교회 사역의 현실과 맞지 않는 것으로 이해했다. 총회 절차 담당 그룹은 상당한 시간을 들여 이 결정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했으며,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행하고자 애쓰며 교단이 믿음과 연약함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도록 함께 기도했다. 추가적으로, 만약 COVID-19 전염병이 2022년까지 지속되고 이로 인해 현장 모임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총회 절차 담당 그룹은 총회사무국이 100%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것을 권장했다.

다음으로, 초반 본회의들과 위원회 업무를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형 회의장과 관련된 선택안들이 논의되었다. 진지한 토론 후에, 이 안건들이 혁신과 실험을 최전선에 두지 않는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혁신을 가능케 하는 삶을 진정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정신으로 우리의 일을 하는 데 깊게 헌신해야 한다. 루이빌에 기반을 둔 선택안도

고려대상으로 올라왔다. 이 안을 선택한다면, 교단 본부 직원들이 사는 곳을 떠나지 않아도 되며, 총회 개최지로 이동하여 오는 이들 뿐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총회 업무를 도울 수 있게 된다.

흥미로운 안건을 총회 사무국의 직원이 제시했다: 켄터키 주 루이빌의 교단본부에서 총회를 진행하는 안건이었다. 이 선택안은 위원회들이 2주에 걸쳐 직접 모이고, 이후에 가상으로 본회의를 진행하는 안이었다. 총회 개최 방식 담당 그룹은 이 선택안이 교단의 가치 및 정서기의 비전에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했고, 총회 업무를 완수하기 위한 창조적인 방법을 모색했다. 총회 대표성 위원회가 제출한 설득력 있는 의견을 읽고난 후, 총회 개최 방식 담당 그룹은 이 선택안의 잠재성을 더욱 확신했다. 총회 대표성 위원회는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만 가능한 공평한 관행, 즉, 이전 총회의 위원회 회의에서 볼 수 있었던 공평한 관행에 대해서 언급했다. 모든 선택안들을 고려한 후, 개최 방식 담당 그룹은 총회 절차 담당 그룹과 함께 선택안들을 파악하고 세 개의 선택안으로 좁혔다. 그 세가지 선택안은 위의 도표 왼쪽에 있다. 이 선택안들은 2020년 12월 3일의 총회사무국 위원회 회의에 제출되었다.

총회사무국 위원회는 위원회 회원들, 총회사무국 직원들, 선교국 동료들, 총회 대표성 위원회의 조언, 헌법 자문위원회의 조언에 귀기울였다. "이것은 진공 상태에서

내려진 결정이 아니다. 이 결정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새로운 구조를 구축하도록 교단에 도전을 주면서도, 교단에 대한 배려를 염두에 두고 내려졌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보다 완전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보고서는 말하고 있다.